

“뛰어난 경비업 관리능력”...동아엠텍, 서대문경찰서서 감사장 받아

과태료 부과 등 사건사고 없어
“빌딩관리 업무에 더 노력할 것”

동아엠텍(대표 강승호)이 22일 서대문경찰서(서장 조재광)로부터 경비업 우수관리 감사장을 받았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동아일보 충정로 사옥에서 열린 ‘2024년도 경비업 우수관리업체 시상식’에는 서울서대문경찰서 관계자와 동아엠텍 임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 대표가 회사를 대표하여 감사장을 전달받았다.

동아엠텍은 인쇄물류전문회사에서 종합자산관리회사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건물관리(FM)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서대문경찰서는 동아엠텍이 과태료 부과 및 사건사고가 일체 없는 등 다른 업체들과 비교해 경비업 관련 관리능력이



(왼쪽부터)서대문경찰서 김현우 경장, 오호관 경정, 강승호 동아엠텍 대표, 전정남 FM사업부장, 양희송 현장서비스교육팀장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탁월하여 경비업 우수관리업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장을 전달한 서대문경찰서 오호관 범죄예방대응과장은 “우리 경찰서가 관리하는 경비업체가 27곳인데, 이들이 규정을 준수하고 정상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청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동아엠텍이 건물관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운영한 지 2년 정도 되었는데, 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아 큰 영광”이라며 “우리 회사가 그동안 철저하게 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해 평가를 받은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또 “이번 수상이 우리 임직원들이 업무 자세를 새롭게 하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모두가 하나 되어 빌딩관리 업무를 최고의 수준으로 수행하고 더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스포츠동아

2024년 10월 23일 수요일
www.sportsdonga.com

KS 1차전 ‘그라운드 사정’으로 또다시 연기...오늘 재개

“雨째 이런일이”

“비로 그라운드 정비만 3시간” 순연
포스트시즌 사상 첫 서스펜디드 게임
오늘 오후 4시, 6회초 삼성 공격 재개
2차전은 1차전 종료 후 1시간 뒤 개시
양팀 감독 “유불리? 크게 개의치 않아”



‘2024 신한 SOL 뱅크 KBO 한국시리즈(KS·7전4선승제)’는 22일에도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했다.

KBO는 22일 오후 4시부터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재개할 예정이었던 삼성 라이온즈-KIA 타이거즈의 올해 KS 1차전 서스펜디드 게임을 ‘그라운드 사정’을 이유로 23일 오후 4시로 순연했다. 이로써 22일 1차전 서스펜디드 게임 종료 후 펼쳐질 예정이었던 2차전 역시 23일로 연기됐다.

1차전 서스펜디드 게임은 경기가 중단된 6회초 삼성 공격 1-0 리드, 무사 1-2루, 김영웅 타석 볼카운트 1B-0S 상황에서 재개된다. 재개된 경기가 9회까지 동점일 경우에는 연장전도 실시된다. 2차전은 1차전 서스펜디드 게임이 종료된 1시간 뒤 시작된다. 단, 1차전이 오후 5시30분 이전 종료될 경우에는 2차전은 일상적인 일정대로 오후 6시30분 개시한다.

광주 지역에는 22일에도 많은 양의 가을비가 내렸다. 오전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으나,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강한 비가 약 1시간 정도 쏟아졌다. KIA 구장 관리 담당 직원들이 이른 오전부터 그라운드 정비를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계속되는 비로 인해 서스펜디드 게임 개시가 예정된 오후 4시까지 정상적인 준비가 불가능했다. KBO 관계자들은 오후 1시가 넘는 시점에 이미 “그라운드 정비에만 3시간 이상이 필요하다”며 경기의 정상 개최가 쉽지 않다는 뜻을 내비쳤다.

결국 삼성-KIA의 올해 KS 1차전은 21일 시작돼 23일 끝나는 ‘2박3일’ 일정을 맞게 됐다. 포스트시즌(P.S) 역사상 서스펜디드 게임이 나온 것은 올해가 처음인데, 일정마저 2박3일이 되면서 사상 초유의 기록이 또 다시 만들어졌다.

KIA 이범호 감독은 22일 1차전 서스펜디드 게임의 순연 결정이 나온 뒤 “경기의 유불리를 떠나 그라운드와 날씨 사정으로 인해 순연된 것을 어떻게 하겠는가”라며 “크게 동요하지 않고, 코칭스태프와 논의해 23일 경기를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삼성 박진만 감독은 “21일 내린 비로 인해 양 팀 선수들이 다치지 않은 게 다행이다. 유불리를 떠나서 정상적인 그라운드 상태에서 경기를 진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 마주한 상황은 서로 똑같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고 경기를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차전 서스펜디드 게임의 관중 입장은 1차전 티켓 소지자에 한해 가능하며, 별도 재예매는 없다. 2차전 관중 입장은 기존 2차전 예매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 한국시리즈 관련기사 2·3면
광주 |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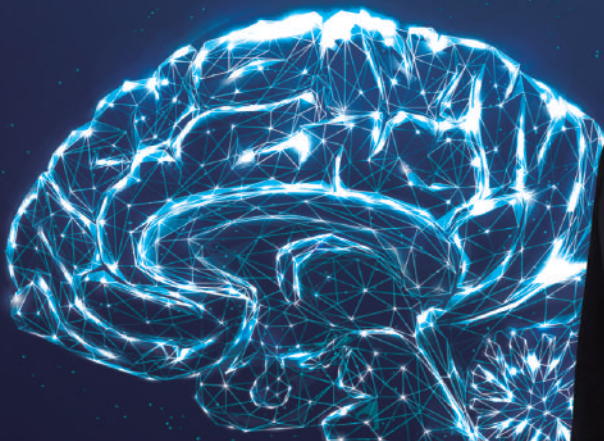
22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예정됐던 삼성-KIA의 KS 1차전 서스펜디드 게임 개시에 앞서 KBO 임채섭 경기감독관(왼쪽), 김시진 경기운영위원장(가운데) 등이 그라운드 상태를 살피고 있다. 1차전 서스펜디드 게임은 ‘그라운드 사정’으로 하루 연기돼 23일 오후 4시 시작된다. 올해 KS 1차전은 결국 ‘2박3일’로 펼쳐지게 됐다. 광주 | 주현희 기자 teth1147@donga.com

CJ WELLCARE

Dr.Nutri

인지력 걱정엔 메모리메이트

특히 받은 포스파티딜세린이면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허 기술력으로 지표성분 손실 최소화 닥터뉴트리 메모리메이트



특허 제 10-199822호 특허 제 10-176394호
2가지 특허공법으로 만든 ‘포스파티딜세린’
■ 노화로 저하된 인지력 개선 건강기능성 원료
■ 제조 공법 및 마이크로 캡슐화의 2가지 특허 기술로 만든 포스파티딜세린 사용, 지표성분 손실 최소화

두뇌건강 + 항산화 케어 포뮬러
■ 포스파티딜세린 일일섭취량 300mg 함유
■ 두뇌건강을 위한 포스파티딜세린과 항산화를 위한 비타민C · E 과학적 배합

기능성 원료 포스파티딜세린 인체시험 결과
■ 학습 인지력, 이름-얼굴 연계 인식능력, 안전 인식능력 증가
■ 65~78세 15명 대상 포스파티딜세린 300mg/일 12주 섭취
■ 출처 : Isr J Psychiatry Relat Sci. 2000;37(4):302-7
■ 인체시험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님



최대 41% 할인 혜택 및
푸짐한 사은품 제공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원 : 씨제이웰케어(주)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원 : (주)노바레스 2공장



CJ웰케어 건강케어센터
24시간 무료상담 및 주문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80-515-9988